



## 정 보

### ◎ 재해예방을 위한 안심일터 만들기 보건관리자 전국대회 개최 안내

우리 협회에서는 2011년 고용노동부 재해예방 주력 사업인 안심일터만들기 사업 추진 기관으로 선정되어 재해예방 사업에 앞장서고 있으며, 안심일터만들기에 보건관리자가 적극 참여하는 결의를 높이고, 보건관리자 역할 정립 및 보건관리 질 향상을 위한 보건관리자 전국대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 일 시 : 2011년 5월 27일 (금) 오후 1시 - 오후5시
- 장 소 : 국회 의원회관 대강당 (지하철 9호선 국회의사당역 6번 출구)
- 주 최 : 한국산업간호협회, 한국산업간호학회
- 후 원 : 신영수 국회의원,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참 가 비 : 없음(교재 및 기념품 무료 제공)
- 참석대상 : 전국 보건관리자 및 안전보건에 관심있는 사람 누구나 가능
- 기타사항 : 지방 참석자를 위하여 광주, 대구, 부산, 대전에 차량제공

◎ 산업간호 우수사례 경연대회 개최 안내

근로자의 건강보호와 산업간호사의 자질향상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써, 2011년 제 44회 산업안전보건강조주간을 맞이하여 아래와 같이 「산업간호 우수사례 경연대회」 를 개최코자 합니다.

- 일 시: 2011. 7. 6(수) 14:00~17:00
- 장 소: COEX 컨퍼런스센터(지하철 2호선 삼성역)
- 주 제: 산업간호 우수사례 경연대회
- 참가비: 무료

◎ 2011년도 한국산업간호협회 보건관리자 교육 실시 계획

1. 직무 신규교육

교육과정명	기수	일정	주관	시간	장소/기타
산업보건관리 (개론) - 신규과정	1기*	1월 24-28일	중앙회	34H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2기*	4월 11-15일	중앙회	34H	서울 백범 기념관 교육장
	3기	6월 13-17일	중앙회	34H	서울 백범 기념관 교육장
	4기	9월 5- 9일	중앙회	34H	서울 백범 기념관 교육장
	5기	10월 24-28일	중앙회	34H	서울 백범 기념관 교육장
	6기	12월 5- 9일	중앙회	34H	서울 백범 기념관 교육장

\* 실시 완료

2. 직무 보수교육

교육과정명	기수	일정	주관	시간	장소/기타
산업보건관리 (심화) - 보수과정	1기*	2월 15-18일	중앙회	24H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2기*	3월 23-25일	중앙회	24H	서울 백범 기념관 교육장
	3기	5월 17-20일	중앙회	24H	서울 백범 기념관 교육장
	4기	6월 22-24일	부산경남지부	24H	부산대학교 양산캠퍼스 간호대학
	5기	9월 27-30일	중앙회	24H	서울 백범 기념관 교육장
	6기	11월 8-11일	중앙회	24H	서울 백범 기념관 교육장
	7기	11월 23-25일	중앙회	24H	서울 백범 기념관 교육장
	8기	12월 21-23일	중앙회	24H	서울 백범 기념관 교육장

\* 실시 완료

### 3. 의료인 면허보수교육

교육과정명	기수	일정	주관	시간	장소/기타
근골격계 질환 예방 교육	1기	하반기	중앙회	8H	미 정

### 4. 전문 교육

교육과정명	기수	일정	주관	시간	장소/기타
보건 교육사 전문교육	1기	하반기	중앙회	16H	미 정

- 고용보험 환급 과정 : 교육 시간 16시간 이상 교육
- 교육인원 30인 미만 시 교육 취소될 수 있으며, 상기 교육 일정 및 과정은 협회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중앙회 소식

### ◎ 김희걸 회장 안심일터 중앙추진본부 제4차 정기 회의 참석

김희걸 회장은 지난 4월 28일, 안심일터 중앙추진본부 제4차 정기 회의 참석에 참석하였다. 회의는 박재완 고용노동부장관의 주관으로 노민기 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 관계부처 대표, 유관기관 및 직능단체 대표가 참여하였으며 추진실적 및 계획, 건의과제에 대하여 토론하였다.

고용노동부는 안심일터 만들기 활성화를 위하여 SNS 활성화 계획에 대하여 발표하였고, 3차 회의 후 청계광장에서 개최된 재해예방 행사에 대하여 TV에서 방영한 동영상을 상영하였다. 한국산업간호협회는 보건관리자 선임대상 전 업종 확대 및 역할 활성화에 대하여 건의한 바 있고, 이날 고용노동부는 관계부처 등 협의를 거쳐 연내에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는 검토의견 발표가 있었다. 또한 회의장에는 청계광장에서 각 기관 대표의 재해의지를 담은 손도장 액자가 전시되어 눈길을 끌었다.

### ◎ 한국산업간호협회 『안심일터 만들기 안전더하기 제주지역센터』 개소

한국산업간호협회는 제주지역 재해감소를 위하여 ‘안심일터 만들기 안전더하기 제주지역센터’를 지난 4월 14일 제주한라대학 내에 개소하였다.

이날 행사에는 김희걸 회장과 제주지도원 김동섭 원장을 비롯하여 서비스재해예방팀장, 제주한라대학 학과장, 제주지역 안전더하기 사업 수행 요원, 해비치 리조트 보건관리자 등 제주지역 내 보건관리자들이 다수 참석하였다.

개소식에서 재해예방사업의 적극적 추진을 위하여 제주한라대학 현인숙 교수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위촉장 수여 및 현판식 행사를 갖고 제주지역 재해예방을 위한 자문회의를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김희걸 회장과 제주지도원 김동섭 원장을 비롯하여 서비스재해예방팀장, 제주한라대학 학과장, 제주지역 안전더하기 사업 수행 요원, 해비치 리조트 보건관리자 등 제주지역 내 보건관리자들이 다수 참석하였다.

행사 후 협회 대표브랜드사업인 “미리미리 건강 UP!, 조심조심 안전 UP!”을 홍보하는 가두 캠페인을 가졌으며 음식업, 배달업 재해예방 관련 현수막을 들고 약 4km 도보 행진을 하였다.

또한 음식업 사업장을 방문하여 재해예방 홍보 문구가 새겨진 기념 볼펜을 증정, 산재 예방 의식 고취를 위한 캠페인을 실시하였다.

이로써 제주지역에서 우리협회는 올해 2,000여개의 서비스업 사업장과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안전보건활동을 적극 추진하게 된다.

## 지부 소식

### ◎ 2010년도 지부 총회 및 월례회 기타 활동 실시 현황

지 부	지 회	구 분	내 용
인천 지부		월례회	▶ 4월 월례회 실시 일시 : 2011.4.22 장소 : 한국 산업안전보건공단 경인지역본부 내용 : 근로자 건강증진사업 활성화 협의회 참석 참석 : 4명
대구 경북 지부		총회	▶ 대구경북지부 총회 실시 일시 : 2011.04.26 장소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대구지역본부 교육장 내용 : 총회 및 교육<고객응대의 달인이 되는 소통비법> 참석 : 22명
		월례회	▶ 3월 구미지역 월례회 실시 일시 : 2011.03.08 장소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경북북부 지도원 교육장 내용 : 교육 참석 : 15명
		월례회	▶ 3월 경주포항지역 월례회 실시 일시 : 2011.03.31 장소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경북북부 지도원 교육장 내용 : 교육<스트레스관리> 참석 : 12명
부산 경남 지부	부산 양산 지회	월례회	▶ 4월 월례회 실시 일시 : 2011.04.28 장소 : 한국건강관리협회 내용 : 작업환경측정 참석 : 7명
	경남 지회	월례회	▶ 4월 월례회 실시 일시 : 2011.04.28 장소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창원지도원 내용 : 작업환경측정 및 2011년 노동부 정책방향 참석 : 21명
	울산 지회	월례회	▶ 4월 월례회 실시 일시 : 2011.04.21 장소 : 고용노동부 울산지청 내용 : 보건관리자 직무수행 및 건강증진활동 활성화 참석 : 45명

## 한국산업간호학회 소식

### ◎ 학회 회원가입 안내

학회 가입원서를 학회 홈페이지(<http://www.ksohn.or.kr>)의 학회소식 공지사항에서 다운받아 작성하여 우편이나 fax 혹은 이메일로 아래 연락처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 평생회비 : 200,000원 (2회 분납가능)
- 일반회비 : 30,000원/1년
- 기관회원 : 200,000원/1년
- 단체회원 : 50명미만일 경우 100만원,  
100명미만일 경우 200만원,  
100명이상인 경우 300만원 이며 1년에 1회 납부
- 예금구좌 : 농협 1165-01-068015 / 예금주 한국산업간호학회
- 연락처 : Tel: 02-2258-7377 Fax: 02-532-3820

e-mail : ohnursing@hanmail.net

## 고용노동계 소식

### ◎ 대세는 육아휴직, 우리 아이 맘편하게 키우세요

- 1/4분기 육아휴직자 14,165명, 전년 동기에 비해 45.3% 증가 -

서울대병원은 산전후 휴가자 337명 중 259명이 평균 280일동안 육아휴직을 사용하였으며, 유한킴벌리는 육아휴직 사용률이 '06년 4.8%에서 '10년 69.0%까지 증가하였다.

이처럼 육아휴직 사용이 확대되면서 지난 해 육아휴직자가 사상 처음 4만명을 돌파했고 아내 대신 육아휴직을 내고 아이 키우기에 나선 아빠도 819명에 달했다. '11년 들어서도 아이를 키우기 위해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근로자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고용보험 전산망 통계에 따르면 2011년 1/4분기 육아휴직급여 신청자는 14,165명으로 전년 동기에 비해 45.3% 늘어났으며, 육아휴직자 중 여성비율은 98.1%로 대부분의 육아휴직자는 여성근로자이

지만, 최근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이 빠르게 증가('10년 1/4분기 146명→'11년 1/4분기 273명)하고 있다.

이는 일과 가정의 양립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개선되고 올해 1월 1일부터 육아휴직급여가 인상된 것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08.1.1. 이후에 태어난 영유아가 있는 근로자는 성별에 관계없이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주가 30일 이상의 육아휴직을 부여한 경우 육아휴직기간동안 고용보험기금에서 육아휴직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다. 육아휴직을 신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하는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권영순 고용평등정책관은 『육아휴직제 말고도 근로자들이 당당하게, 맘편히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대체인력채용장려금'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것』 이라고 밝혔다.

문 의: 여성고용정책과 김동현 (02-2110-7293)

### ◎ “여성은 기업의 힘! 대한민국의 경쟁력입니다”

우수한 여성 인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직장 내 남녀차별 관행을 없애는데 앞장서 온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으로 한국화이자제약(주)과 (주)휴넷 등이 선정되었다.

고용노동부는 4월1일(금) 오전 10시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제11회 남녀고용평등 강조주간 기념식」 을 개최하고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으로 선정된 19개사에 대해 시상을 한다.

문 의: 여성고용정책과 김종학 (02-2110-7295)

## 산업보건계 소식

### ◎ 1분기 산업재해자수 작년보다 2천여명 감소

- 안심일터 추진본부, 노·사·민·정 379개 기관과 산재예방 활동중 -

올해 1/4분기 산업현장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자가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2천여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월부터 3월 까지 재해자수는 21,256명으로 전년 동기 23,426명 대비 2,170명(9.3%) 감소하였으며, 감소 추세는 전 업종에 걸쳐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산업재해 감소 추세를 이어가기 위해 지난해 12월 발족한 "안심일터 추진본부"가 본격 가동되는 시점에 나타난 성과라는 점에서 관심을 모은다.

문 의: 서비스산재예방팀 함병호 (02-6922-0961)

### ◎ 조심조심 안심일터 슈퍼마켓, 마트 종사자 여러분, 이것만은 지켜주세요

#### - 고용노동부, 도·소매업의 산업재해 예방 가이드 보급 -

고기씨는 기계 등 조리기구를 청소할 때는 기계를 정지시키고 하세요, 사다리를 사용해서 작업을 할 때는 2인 1조로 하세요, 서서 오랫동안 작업을 할 때 의자를 비치하세요.

고용노동부(장관 박재완)는 슈퍼마켓, 마트 등 유통업체 종사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도·소매업의 산업재해 예방 가이드 를 제작·보급한다.

주요 내용은 산재발생 유형과 위험요인 분석결과를 토대로 마련된 안전보건 텐-텐 (Safety & Health 10-10) 수칙과 오랜 시간 서서 일하는 작업자를 위한 건강관리 요령 등이다.

고용노동부는 제작한 가이드북을 기업형슈퍼마켓(SSM) 본사, 체인스토어협회, 편의점 협회, 중소마트(839개소) 등에 보급하여 자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문기섭 산재예방보상정책관은 “서비스 업종에서 발생하는 재해자 중 도·소매업 종사자가 두 번째로 많아 사업주와 근로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하면서, “사업장에서 안심일터 가이드북을 활용해서 안전수칙 교육과 시설개선 등을 이행하도록 적극 권장하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올 하반기부터 기업형슈퍼마켓(SSM) 등 대상 사업장에 대해 각종 점검, 감독을 실시해, 관련 법령 이행여부를 조사하고 위반사항은 행정, 사법 처리할 예정이다.

문 의: 서비스산재예방팀 김정연 (02-6922-0962)

### ◎ “요통, 근골격계질환 이렇게 예방하세요”

산업안전보건공단, 「생활 속 요통 예방 5대 수칙」 및 「작업관련 근골격계질환 예방 10대 수칙」 제공  
이삿짐을 정리하던 A씨는 책장 정리를 위해 책 다발을 옮기려 허리를 굽히다 통증을 느껴 다음날 병원을 찾은 결과 요통으로 진단을 받았다.

자동차 조립업체에서 일하던 B씨는 주로 목을 굽히고 매일 작업을 지속하다 어깨와 허리에 통증이

발생하였으나 참고 일하다 추간판 탈출증으로 신경치료와 수술을 받았다. 이처럼 일상생활이나 일터에서 발생하기 쉬운 요통 등의 근골격계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이 제시되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노민기)은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는 ‘생활 속 요통 예방 5대 수칙’과 ‘작업관련 근골격계질환 예방 10대 수칙’을 발표했다.

‘생활 속 요통 예방 5대 수칙’은 일상생활에서 주로 발생하는 허리통증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 물건을 들 때는 물건을 몸에 최대한 밀착시키고 허리를 펴고 들것, 무거운 물건은 가볍게 나눠서 들거나 다른 사람과 함께 들것, 의자에 앉을 때에는 허리를 곧게 펴고 바르게 앉을 것, 오랜 시간 한 가지 자세만 유지하지 말고 자주 자세를 바꿀 것, 스트레칭과 허리근력 강화 운동을 생활화 할 것 등이다.

한편, 산업현장에서의 근골격계질환은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질환군으로, 지난해의 경우, 근골격계질환으로 5,502명의 재해자가 발생해 전체 업무상 질병자(7,803명)의 70.5%를 차지했다.

이러한 근골격계질환은 무리한 힘을 사용하거나 과도한 동작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반복적인 동작, 부자연스런 자세 등이 주요 원인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공단은 작업과 관련하여 근골격계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10대 수칙을 제시했다.

‘작업관련 근골격계질환 예방 10대 수칙’은 물건을 들거나 내릴 때 허리를 굽히거나 비틀지 않기, 어깨 위 높이에는 되도록 물건을 두지 않기, 물건 운반 시 이동대차 사용하기, 자주 사용하는 부품이나 공구는 몸 가까이에 두기, 작업높이는 팔꿈치 높이로 하기, 수공구는 가볍고 다루기 쉬운 것을 선택하기, 오래 서서 일할 때는 입좌식 의자나 발 받침대 사용하기, 작업장 정리정돈을 잘하고 바닥은 평편하게 하기, 스트레칭을 생활화하기, 정기적인 충분한 휴식시간 갖기 등이다.

공단은 이번에 개발된 예방수칙 관련 내용을 홈페이지([www.kosha.or.kr](http://www.kosha.or.kr))의 ‘근골격계질환 예방 자료실’에 등록하여 일반국민 및 사업장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아울러,공단 지역본부 등에 포스터를 배포하여 관련 산업현장에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문 의: 직업건강실 김현호 (032-5100-719)

### ◎ 휴게실·샤워실 설치 지원 등 청소용역 근로자 근로조건 개선에 적극 나서기로

청소용역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청소업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도급사업주가 휴게실·샤워실 설치에 협조하도록 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지난 4월 5일 국무회의를 통

과하였다.

문 의: 근로개선정책과 전해선 (02-2110-7386)

고용차별개선과 김동욱 (02-2110-7402)

### ◎ 고용노동부, 건설현장 안전불감증에 조치강화

- 전국 793개소 해빙기 건설현장 점검결과 30개소 입건, 130개소 작업중지 조치 -

고용노동부는 지난 3월2일(수)부터 25일(금)까지 실시한 「해빙기 건설현장 일제점검」 결과를 발표하였다.

지반 및 토사 붕괴사고 등 산업재해 위험이 높은 건설현장 793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 점검에서 96.5%인 766소에서 3,023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점검 결과, 안전난간·안전망·작업발판 등 추락재해 예방을 위한 기본적인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건설현장 30개소는 형사입건 하였고 안전관리가 극히 불량한 12개소는 전면 작업중지, 특정 부분에 대한 안전시설 미비로 산업재해 위험이 큰 118개소는 부분작업 중지를 시켰으며 방호 조치가 소홀한 위험기계 139대는 사용중지하는 한편, 3억8천여만원(316건)의 과태료와 2,744건에 대해 시정명령을 병행하는 등 강력히 조치하였다.

적발된 현장 중 추락, 낙하, 붕괴, 감전 예방 조치 미비 등 안전상의 조치 위반이 2,178건(72.0%)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안전보건교육 미실시 135건, 유해위험기계기구 방호조치 미비 112건, 산업안전관리비 위반 81건 등이 적발돼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5월19일(목) 부터는 모든 건설 현장에 대해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등 산업안전보건법 과태료 사항 79개 조항을 위반할 경우,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에 대해 조치가 한층 강화된다.

문기섭 산재예방보상정책관은 “유난히 길었던 겨울을 보내면서 자칫 해빙기 대비에 대해 소홀해 질 수 있으므로 산재 위험이 예상되는 건설 현장을 지속적으로 감독해 나갈 것”이라고 전하며 “관련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되, 안전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곳에 대해서는 행정·사법적 제재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의: 건설산재예방과 고광훈 (02-6922-0951)

◎ ‘넘어짐 사고’예방을 위해 정부와 민간이 팔 걷어붙여

- 지난해 ‘넘어짐 사고’로 97명 사망, 2만1천명 부상 -

박재완 고용노동부 장관은 서울 청계광장에서 정부기관, 노·사 단체, 안전·보건 유관기관, 직능단체 등 29개 기관 관계자와 일반시민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넘어짐 사고예방 캠페인」을 실시하였다.

넘어짐 사고는 일상생활 속에서 누구나 한번쯤 경험하는 경미한 사고로 인식하고 있으나, 작년 한 해 동안 산업현장에서 발생한 재해자 총 9만8천명 중 2만1천명(21.5%)이 넘어져 다쳤고, 그 중 97명이 목숨을 잃었으며, 특히, 넘어짐 재해의 절반(51.4%)이 우리 생활과 밀접한 분야인 식당, 학원, 병원, 청소 등 서비스업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심일터 중앙추진본부 제3차 회의에 이어 개최된 이번 행사는 근로자와 사업주, 그리고 국민들에게 넘어짐 사고의 위험성과 심각성을 널리 알려 사고예방을 도모하고자 개최된 것이다.

이 날 박재완 장관은 “넘어짐 사고는 다른 무엇보다 개인의 주의와 관심만 있으면 충분히 예방이 가능하다”고 설명하고 “각자 안전을 실천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 하였다.

이날 행사에서는 「안심일터 중앙추진본부」 참여기관 대표 29명의 ‘사고예방 실천 약속 손도장 찍기’, ‘오토바이 안전배달 거리 캠페인’ 등 다채롭게 진행 되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산업재해를 선진국 수준으로 감소시키기 위해 「안심일터 추진본부」를 중앙 및 16개 광역시·도별로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정부부처·노사단체·유관기관·직능단체 등 총 374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문 의: 서비스산재예방팀 함병호 (02-6922-0961)

## 간호계 소식

### ◎ ‘의료인 면허신고제’ 국회 통과

#### 3년마다 실태와 취업상황 복지부에 신고해야

간호사를 비롯한 의료인은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을 보건복지부에 신고해야 한다. 의료인의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에 대해 의료인 중앙회에서 자격정지 처분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4월 5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날 통과된 의료법 개정안은 이애주 한나라당 국회의원·양승조 민주당 국회의원 등이 발의한 개정안을 병합심사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마련한 단일안이며, 3월 9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가결된 후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회를 통과한 의료법 개정안에 따르면 간호사,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등 의료인은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제25조 제1항 개정) 신고하지 않은 의료인의 경우 신고할 때까지 면허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도록 했다.(제66조 제4항 신설)

복지부장관은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의료인에 대해 신고를 반려할 수 있다. 신고 수리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제25조 제2항 및 제3항 신설)

단,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의료인 면허를 취득한 사람에 대해서는 개정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신고하도록 경과조치를 뒀다.

개정안에서는 또 의료인 단체 중앙회에 윤리위원회를 두도록 했다.(제28조 제7항 및 제8항 신설) 의료인 단체 중앙회는 의료인이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내부 윤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복지부장관에게 자격정지 처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제66조의 2 신설)

이번에 통과된 의료법 개정안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김보배 기자 bbkim@koreanurse.or.kr

## ◎ 유휴간호사 재취업전담센터 7곳 오픈

일대일 상담 - 재교육 - 맞춤형 일자리 연결

시도간호사회에서 고용부 위탁받아 운영

취업상담 전용전화 개설 원스톱 서비스

‘유휴간호사 재취업전담센터’가 전국적으로 가동된다. 대한간호협회 7개 시도간호사회가 고용노동부의 위탁을 받아 재취업전담센터를 운영한다. 센터에서는 유휴간호사들을 적극 발굴해 맞춤형 일자리를 연결해준다.

고용노동부는 유휴간호사 재취업전담센터 7곳을 선정해 본격적으로 운영에 들어간다고 발표했다.

센터는 부산시간호사회, 대구시간호사회, 인천시간호사회, 대전시간호사회, 경기도간호사회, 충북간호사회, 충남간호사회 등 7곳에서 운영하며, 대한간호협회 중앙회가 총괄한다.

고용부는 “이번 사업은 임신·출산·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간호사들에게 재취업교육을 시키고, 취업상담과 알선 등을 통해 의료현장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라면서 “경력단절 기간이 긴 간호사들은 재교육을 시킨 후 취업을 알선하고, 바로 취업이 가능한 간호사들에게는 즉시 일자리를 소개하는 등 개인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병원 내 상용형 시간제 간호사 일자리를 발굴하는 데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시간제근로자를 새로 고용해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인건비 일부를 지원할 계획이다.

나영돈 고용부 고용서비스정책관은 “이번 사업이 인력난을 겪고 있는 지방 중소병원에서 우수한 유휴간호사를 채용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출산과 육아로 노동시장을 떠났던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 성공모델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7개 센터에서는 취업을 희망하는 간호사를 찾아내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취업포털 ‘워크넷’(www.work.go.kr)에 등록시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게 된다. 취업상담 전용전화를 개설해 일대일 상담을 실시하고, 맞춤형 일자리를 발굴해 연결해준다. 경력이 단절된 간호사들이 자신감을 갖고 현장에 복귀할 수 있도록 재취업교육과정을 운영한다. 재취업교육과정은 간호사 보수교육으로 인정된다.

대한간호협회는 “전문직 간호사들이 일과 가정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맞춤형 일자리를 찾아

주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규숙 기자 kschung@koreanurse.or.kr

## ◎ 간호교육 4년 학제 일원화 실현

### 고등교육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간호교육 4년 일원화를 위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4월 29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에는 전문대학 간호과에서 4년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학사 학위를 수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명시됐다. 4년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고 평가를 거쳐 지정을 받아야 한다.

△본회의 통과까지 경과보고 =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3월 9일 열린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서상기) 회의에서 안상수 한나라당 의원, 김춘진 민주당 의원, 김영진 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 법률안 3건을 병합심의한 후 마련한 위원회 대안이다.

이후 개정안(위원회 대안)은 3월 11일 교육과학기술위원회(위원장·변재일) 전체회의와 4월 15일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우윤근) 전체회의를 통과했으며, 4월 29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가결됐다.

△고등교육법 개정안 핵심내용 = 이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확정된 고등교육법 개정안에는 ‘의료인 양성을 위한 과의 수업연한 및 학위에 관한 특례’ 조항(제50조의 3)이 신설됐다.

신설된 조항에 따르면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을 양성하기 위해 전문대학에 개설된 과의 수업연한은 4년으로 할 수 있고, 4년의 과정을 이수한 사람에 대해 학사학위를 수여하도록 했다.

4년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교육여건과 관련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춰 교과부장관의 지정을 받도록 했다. 교과부장관은 지정을 위한 평가를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간호계 한마음으로 뛰어 =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통과된 날 국회 본회의장 방청석에는 대한간호협회 신경림 회장을 비롯한 임원과 대표자들이 자리해 역사적인 순간을 지켜봤다.

신경림 회장은 “40여년 숙원과제인 간호교육 4년 일원화를 실현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는 역사적인 결실을 이루게 됐다”면서 “그동안 간호협회 중앙회와 혼연일체가 돼 뛰어 준 시도간호사회, 한마음으로 힘을 보태 준 전국 29만 간호사와 6만 간호대학생들에게 감사드

린다”고 말했다.

한편 간호협회는 지난 2월 국회에서 간호교육 학제 일원화를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고, 이 자리에는 전국에서 2000여명의 간호사와 간호대학생들이 참석해 결연한 의지를 보여줬다. 특히 공청회 자리에는 국회의원들이 대거 참석했으며, 간호교육 4년 일원화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한 바 있다.

정규숙 기자 kschung@koreanurse.or.kr

### ◎ 한국 전문간호사 역할 정립 공청회

전문간호사 업무범위 법에 명시해야

#### ◇ 전문간호행위 보험수가 개발 ... 보상체계 마련 시급

전문간호사제도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선 전문간호사 업무범위 및 배치기준을 법에 명시하고, 전문간호행위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를 개발 적용해야 한다.

한국 전문간호사 역할 정립을 위한 공청회가 4월 29일 오후 1시 30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윤석용 국회의원(한나라당, 보건복지위원장)이 주최하고 대한간호협회가 주관했다.

개회식에서 윤석용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수준 높은 전문간호사 인력이 배출됐지만 실제 임상현장에서 역할이 명확하게 정립되지 않은 게 사실이며, 전문간호사제도가 적극 활용되지 못하는 것은 정책적으로 안타까운 부분”이라면서 “국민건강을 위해 전문간호사와 의사가 윈 - 윈 할 수 있는 전략을 모색하는 공청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의화 국회부의장은 축사를 통해 “간호사에게 요청되는 기능과 역할이 다양화되고 전문화되고 있다”면서 “전문간호사가 사회·경제적으로 걸맞은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 규정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무성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전문간호사에 대한 업무규정과 보상체계가 필요한 만큼 오늘 좋은 대안을 내놓길 바란다”고 말했다.

고흥길 의원(전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전문간호사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는 만큼 법·제도적 보완책을 모색하는 알찬 공청회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석호 의원, 김소남 의원, 김태환 의원, 박보환 의원, 배영식 의원, 신상진 의원, 안효대 의원, 윤영 의원, 이병석 의원, 이애주 의원, 이은재 의원, 이철우 의원, 장광근 의원, 정영희 의원, 최경희 의원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김정곤 대한한의사협회장 등이 참석했다.

신경림 대한간호협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전문간호사에 관심을 갖고 참석해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면서 “전문간호사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법·제도적 개선방안이 폭넓게 논의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개회식에 이어 김진현 서울대 간호대학 교수는 ‘건강보험 급여화를 통한 전문간호사 역할 정립’ 주제발표를 통해 “전문간호사제도가 유명무실해지지 않도록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는 일이 시급하다”면서 “전문간호사 역할과 배치기준을 법에 명시하고, 전문간호행위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진현 교수는 “전문간호사 인력기준을 규정하는 법령이 미비하고, 전문간호행위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가 없기 때문에 전문간호사를 고용할 사회·경제적 동기가 불확실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 같은 문제해결방안으로 “전문간호사 인력기준을 의료법에 명시하고, 의료기관 인증평가 지표에도 포함시켜야 한다”면서 “특히 전문간호행위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화를 통해 적절한 보상기전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강조했다. 전문간호행위를 독립된 급여행위로 인정해 건강보험 수가를 개발하고, 전문간호사 인력수준에 따른 가산료를 설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김진현 교수는 보험 급여화 전략으로 “우선 전문간호행위를 분명하게 정의하고 분류해야 한다”면서 “전문간호행위가 환자에게 나타나는 결과를 개선한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를 연구를 통해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간호계가 정책결정과정에 적극 참여하고, 정책결정자들과 우호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린다 피어슨 박사(전문간호사 컨설턴트)는 ‘미국 전문간호사 법·제도 발전과정과 활성화를 위한 노력 및 전략’ 주제발표를 통해 “미국 전문간호사는 법 규정에 근거해 자격과 역할을 공식적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진단과 처방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독립적으로 일하고 있다”면서 “전문간호사는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양질의 간호를 제공하며, 환자의 접근성을 높이고, 의료비용을 절감하는 데 기여한다는 사실이 입증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전문간호사에게 완전한 자율권을 주었을 때 얻을 수 있는 환자의 이익에 대해 정책결정자들에게 알려야 한다”면서 “국민들에게 전문간호사의 자격, 종류, 역할 등에 대해 쉽게 설명할 수 있는 홍보물을 만들라”고 조언했다.

린다 피어슨 박사는 “전문간호사가 권한과 책임을 갖고 자율성을 충분히 발휘하기 위해선 간호계 내부에서부터 모두가 인식을 같이 해야 한다”면서 “간호전문직단체는 강력하게 한 목소리를 내고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전문간호사의 역할을 확대하기 위해선 간호사들 스스로 자신감, 자존감, 정체성, 신념과 확신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긍정적인 간호이미지를 강화함으로써 힘을 북돋워야 하며, 긍정적인 정체성은 간호를 더 강하게 발전시킨다”고 말했다.

주제발표에 이어 박호란 한국간호평가원장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지정토론이 진행됐다.

이용균 한국병원경영연구원 연구실장은 “전문간호사에 대한 홍보와 소통에 역량을 집중해 사회적 인식을 높일 필요가 있다”면서 “김진현 교수의 제안 중에서는 전문간호사 인력기준을 의료기관 인증평가에 포함시키기 보다는 보험급여화에 중점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미형 센트럴병원(경기 시흥) 마취전문간호사는 “전문간호사의 업무범위가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기 때문에 임상현장에서 의료인 간에 혼란과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전문간호행위에 대한 수가를 책정하고, 전문간호사 보수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백후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책임연구원은 “의사에 대한 접근성이 뛰어난 우리나라 의료 현실에 맞게 전문간호사의 역할과 업무가 논의돼야 한다”면서 “의사 또는 의사에 의한 의료행위를 대체하기 위한 방향으로 전문간호사제도를 논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김덕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급여기준실장은 “전문간호사 수가에 대한 기초연구가 충분히 이뤄져야 하며, 이에 근거해 구체적인 급여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면서 “전문간호사의 법적 역할 확대가 먼저 이뤄지고 이에 대한 비용 보상전략이 따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경 한국간호평가원 전문간호사자격시험위원장은 “전문간호사 자격을 취득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실무현장에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없고, 승진 등의 보상체계가 마련돼 있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면서 “전문간호사 배치기준 및 업무범위를 법에 명시해야 하며, 건강보험수가가 개발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전문간호사 자격 취득 후에는 엄격한 질 관리를 위해 전문화된 보수교육을 매년 받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정희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부위원장은 “전문간호사의 업무범위를 법에 명시하고 보상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면서 “정부 차원에서 현행 전문간호사제도에 대해 평가하고 보완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창준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장은 “전문간호사의 역할과 비용보상 부분은 의료계 내에서 합의를 이루면서 추진해야 할 것”이라면서 “환자의 만족도를 높이는 방향에서 접근하면서 전문간호사제도를 심도 있게 분석하고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정규숙 기자 [kschung@koreanurse.or.kr](mailto:kschung@koreanurse.or.kr)